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경도, 불멸의 업적

우리 장군님은 어제도 오늘도 붉은 당기와 함께

그리움의 5년간, 유분관철의 5년 간이 흘렀다.

12월의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보아도, 혁명의 최고참모부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나뭇기는 붉은 당기를 숨염히 안아보아도 인민의 마음에는 우리 장군님의 태양의 영상이 어찌 어둡다.

철필아래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원에서 사과꽃노시 전례처럼, 200 입건로의 열풍속에 강박이 펼친 최한한 풍광노시가 불려와도, 사회주의 전야에 풍년작황이 심려도 인민의 마음은 위대한 장군님께 당고였다. 인민의 심장속에 가득차있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 그것은 힘있게 나뭇기는 붉은 당기꽃속에 세지는 태양의 영상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과 인간군장병들의 심장엔 장군님은 민족의 어머니로, 우리 당의 총비서로 깊이 새겨져있으며 세상사람들도 그것을 공인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에 수렴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이다. 파란많은 사회주의운동사는 피길은 교훈으로써 혁명의 수령이 이복

한 위엄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후계자의 위엄임을 증명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라는것은 결코 어떤 상징적인것도 도의적인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와 비범한 명도력에 의하여 수립성상 좋기한 강화발전으로 이어진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그이의 사상과 로선대로 핵승명자가 우리 당의 오늘이 마땅

주요있는 업적인 현실이다. 어떠한 력사적사건도 당대에 그의 미를 다 리해하기를 어렵다고 한다. 더 우기 자신을 필두로하며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여기시며 수령님의 력사속에 자신의 존재적이면서도 비범하고 탁월한 사색과 창조, 투쟁의 력사를 고스란히 꽃어오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었는가.

결절한 그리움이 불타오른 5년세월 인민은 우리 장군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한생애에 대하여 쓴 회상록의 각페이지에서 인민은 거대한 사면들과 감동깊은 일화들을 통하여 절세위인의 한생애, 력사의 진실을 다소나마 리해하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 당중앙위원회청사에 서 산 생명체와 같이 피어있는 붉은 당기, 당중앙위원회청사지붕우에 게양되어있던 공화국기대신 당기발에 펼쳐 휘날리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부터였다. 당기발을 붙여 안으시고 당중앙위원회청사우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붉은 당기를 게양하시었다.

붉은 당기를 장광높이 띄워올리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넘나신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신 생애와 비라보신 미래가 무엇이었는지 당시에는 누구도 알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총합대학에서의 혁명활동을 마치신 다음 새벽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그이와 중앙위원회의 일군에게 당기발과 관련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미쿠하여 종이 었을 때 함께 밤을 밝힌 일군들과 반으로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휘날리는 당기발을 보시며 저 기발

을 불바다를 해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시며 혁명의 기발이라고 하시면서 핵두실의 무게를 담아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의 넘님이 담겨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후남 당중앙위원회에 첫 자욱을 찍으시던 아침에 대하여 영광은 하늘에 닿았으나 절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사명감으로 높여졌으나 마음은 착잡했다고 회고하시었다.

파죽한 운명적과제를 안고있는 우리 당이었다. 당이 지면한 운명적과제를 수행하고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면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난한 길을 헤쳐야 하였다.

6월 19일, 력사적인 그날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교박 지세우시었다. 새벽까지 정양시당의 일군과 당화를 하고 중앙위원회의 일군에게 당기발과 관련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미쿠하여 종이 었을 때 함께 밤을 밝힌 일군들과 반으로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휘날리는 당기발을 보시며 저 기발

을 불바다를 해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시며 혁명의 기발이라고 하시면서 핵두실의 무게를 담아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수령님의 당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수령님의 당입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우리 당의 부리에 대하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당에 대하여 말할 때 수령님의 존엄과 더불어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과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승적, 김정일동지의 의지는 이렇게 우리 당의 체내에 흘러들기 시작하였다. 전정 6월 19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명을 주신 조선로동당에 우리 장군님께서 의하여 새겨진 한 잎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날이었다. 수령님중심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수령님중심의 전지에서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문제를 대하시며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건이래 틀러온 스물두해와 근본적으로 다른 걸 정치적전환의 새봉을 우리 당에 불러오신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국제공산주의운동에는 현대수정주의가 급속히 전파되고 우리 당에서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정면 도전해나섰던 준엄한 시기였다.

우리 당에 기여들었던 수정주의분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명도적지위를 위태로보려고 음모적으로 행동했다. 우리 혁명이 있어서 유일애로 향한 모든 초심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당을 핵이 없는 두리몽실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자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말아먹고 혁명을 위협에 빠뜨린수 있는 운명적인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두장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질사용을 위한 투쟁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수령님께 충직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의 힘에 의지하여 력사적인 그 전원회의를 승리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었다.

전원회의준비가 진행되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세철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들려오른다. 이번이 처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라는 말을 전당적으로 쓰게 되었는데 유일이란 말이 중요하다. 유일이라는 말은 수령님당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당은 오직 수령을 유일종심으로 하여 하나로 굳게 쥘어야 합니다. ... 전원회의준비를 위하여 우리 장군님

바시신 심혈과 드고 그 열매였는가. 눈은 총혈되고 입술은 부르드셨지만 시대의 온갖 도전속에서 당의 운명

을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고 행동 강으로 심신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드디어 전원회의가 시작되어 첫

문제가 도의적 때 보고의 첫머리는 다음의 문구로 시작되었다. 《혁명과 전제 인민이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지로 무장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본 당의 창건자이며 명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장내에 똑똑같은 박수갈채가 되저다. 우리 당은 엄숙한 정열을 띠어

리고 환희의 불, 격동의 불을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때에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정세를 틀러내고 그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것은 그 누구에게서 과업을 받아서가 아니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정세를 틀러내고 그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당원의 의무이고 또 그렇게 하는것이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당의 흑이고 입인 종파를 들어내는 운명적과제를 수행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우리 당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이 다가오고있었다.

력사의 전정기, 조종간을 역세로 틀러위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파 불려의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기관차 가 되어 우리 조국의 내도와 내달을 울려 울려 영광으로 빛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과 본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명을 전로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절대종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시였으며 김일성주의의 건인력과 생활력을 비운명적인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두장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질사용을 위한 투

쟁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수령님께 충직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의 힘에 의지하여 력사적인 그 전원회의를 승리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었다.

전원회의준비가 진행되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세철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들려오른다. 이번이 처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라는 말을 전당적으로 쓰게 되었는데 유일이란 말이 중요하다. 유일이라는 말은 수령님당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당은 오직 수령을 유일종심으로 하여 하나로 굳게 쥘어야 합니다. ... 전원회의준비를 위하여 우리 장군님

바시신 심혈과 드고 그 열매였는가. 눈은 총혈되고 입술은 부르드셨지만 시대의 온갖 도전속에서 당의 운명

을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고 행동 강으로 심신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드디어 전원회의가 시작되어 첫

문제가 도의적 때 보고의 첫머리는 다음의 문구로 시작되었다. 《혁명과 전제 인민이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지로 무장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본 당의 창건자이며 명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장내에 똑똑같은 박수갈채가 되저다. 우리 당은 엄숙한 정열을 띠어

대한 경원과 존경심으로 미칠듯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의 전제 김일성주의자는 우리보다 그분이 먼저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술소, 김일성주의자로 말하면 그야 김일성주의의 내용은 본인이 먼저시

이 최현이 메넨 주의자라면 좀 어색 해도 김일성주의자 하면 그보다 영광이 없겠소. 아랫은 이따를 김일성주의자가 누가 먼저나 하는 논의가 있거든요. 난 김정일동지라고 쟁립 해요.》

김정일동지는 첫 김일성주의자!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성산 벼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력사의 땅 삼지연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기치하에 더욱 힘차게 전진해갈 조선혁명의 새시대가 도래하고있음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강연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시기 2년전의 일이었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우리는 형제적우호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명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명도일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민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수필 위인의 좌우명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헌원은 그리움을 더해주는 12월은 사람 불에게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하다면 그의 한생애는 어떤 좌우명을 안고 흘렸는가. 며칠전 슬픈김에 서었다. 김일성장광을 지나는데 주변에 세워놓은 방충선전차에서 노래가 울려나오고있었다. 가요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의 선율이 울려나왔다.

장군님 마음속 첫자리에는 그의 하늘이 된 인민이 있네 인민이 바라는 물에도 꽃을 피우는것 우리 장군님 우리 장군님 좌우명이라네

...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리르며 노래의 세계에 잠겨나리나 저도모르게 가슴이 떨려들었다.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이 실린 그의 성스러운 한생애가 무엇이었는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위선은 장군님의 한생애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무릇 위인의 위대성과 빛나는 한생애는 그의 좌우명에 짐작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인민위선, 바로 이 네글자로 된 좌우명속에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활동력사의 근본의 미가 있는것이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해 10월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참담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인민위선의 사상으로 본분의 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시하시었다.

인민위선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이며 나의 정치철학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당의 인민사상의 정치, 인민정치에도 인민위선의 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자하며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있으면서 군민대중의 생활을 사랑하고 온전히 보살펴주고있습니

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 마디마디에 얼마나 인민사랑의 뜨거운 정이 넘쳐나고 그의 인민위선의 좌우명이 맥박치는 교시인가. 력사에는 위인들이 한 생의 지침으로 삼은 좌우명들이 많다. 사회정치활동으로 이복놓는 위인들이 정의와 진리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긴 좌우명도 있었고 과학발견과 발명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단우대에 서도 과학자의 명심과 신념을 저버리지 않으며 고수한 좌우명도 있었다. 료통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위한 학살범주와 투쟁에 한생을 바친 수령들에게도, 계급투쟁과 사회진보와 변명, 창조와 혁신을 위해 한생을 바친 정치가들에게도 시대의 력사의 요구를 필감하면서 삶과 투쟁의 거울로, 지침으로 삼은 좌우명들이 있었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 인민위선과 같은 위대한 사상과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것으로 한생애를 엮어온 위인을 알지 못한다. 인민위선, 정녕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인민대중이라는 확신에 기초하여 언제나 인민에게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다 바쳐나가는것을 투쟁과 생활의 절대적신조로 삼고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한 좌우명이었고 인민을 위해 그처럼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실수 있는 근본원인이었다.

우리의 장군님의 좌우명에 실린 위대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전하며 노래는 계속 울려오다. ... 인민의 기쁨을 막으로 삼고 한생을 그 길에 바쳐가시네 인민의 가슴에 만복을 안겨 주시라는

우리 장군님 우리 장군님 좌우명이라네

그렇다. 인민위선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끊이지 않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위선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드시어 인민사랑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명도와 더불어,

본사기자 김준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는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혁명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어 주체혁명 위업수행에서 혁명적전진을 가져오게 하시었다.》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미술작품들 가운데는 조선화 《삼지연의 새벽길》이 있다. 꽃가에 서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려가고 때두산기슭에 는 노을이 불라는데 이따나무 숲을 지나 삼지연못가를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명화는 력사적사실에 기초한 작품이다. 력사의 그날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넘쳐났다. 주체 61(1972)년 6월 보원보원투승리 35돌 기념행사에 참가하시기 위해 광명도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삼지연에 들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삼지연못가의 새벽길을 건너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목숨이 우거진 숲속으로 불어 가시었다. 숲속에는 위나들이 무릎을 치게 지하고있었다. 불뿔을 한층 붙여가지고 나오시어 그 향기를 받으시는 우리 수령님의 상애에 퍼이던 항일투사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실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항일 투사에게 오느처럼 의의깊은 날도 드물것이라고, 수령님중심으로 따르고 때두산이 바라보이는 못가로 거닐게 되니 투사들중에서 생각되는바가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청춘을 바쳤는가고, 수령님을 모시고 싸우다가 최후를 마친 항일투사들은 모두 항문은 혁명가들이며 열렬한 김일성주의자였다고 표시 하시었다.

(김일성주의자?...!) 투사는 흥분해 휩싸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오랜 기간 혁명의 길을 헤쳐온 투사에게도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은 처음으로 들리는 표현이었기때문이였다. 그러는 투사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길은 의연히 간고하지만 어떤 모진 시련이 닥쳐와도 김일성주의의 기치를 붙여가지고 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날 숲속로 돌아온 투사는 열렬한투사들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방공 쿠가 반박 드이는 말을 들으시오, 김일성주의!

김일성주의자!... 어떻게습니까, 투사들?》 그러고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따라 현전리마을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은 모두 김일성주의자라고 하였고 그렇게 넘쳐 넘쳐 이야기하였다. 김일성주의! 김일성주의자! 방안에는 뜨거운 격정이 파도 쳤다.

혁명의 머나먼 길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전리성, 그 위대함을 깨우쳐 느꼈던 투사들이었다. 하지만 그 누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위대한 그의 존엄과 결부시켜 부를 생각을 한적이 있었는가. 투사들의 가슴가슴은 또 한번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동지

대한 경원과 존경심으로 미칠듯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의 전제 김일성주의자는 우리보다 그분이 먼저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술소, 김일성주의자로 말하면 그야 김일성주의의 내용은 본인이 먼저시

이 최현이 메넨 주의자라면 좀 어색 해도 김일성주의자 하면 그보다 영광이 없겠소. 아랫은 이따를 김일성주의자가 누가 먼저나 하는 논의가 있거든요. 난 김정일동지라고 쟁립 해요.》

김정일동지는 첫 김일성주의자!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성산 벼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력사의 땅 삼지연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기치하에 더욱 힘차게 전진해갈 조선혁명의 새시대가 도래하고있음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강연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시기 2년전의 일이었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우리는 형제적우호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명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명도일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민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우리는 형제적우호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명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명도일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민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우리는 형제적우호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명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명도일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민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우리는 형제적우호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명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명도일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민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우리는 형제적우호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명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명도일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민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우리는 형제적우호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명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명도일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민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우리는 형제적우호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명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명도일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민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우리는 형제적우호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명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명도일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민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변질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갔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국가수반 포스탱 아르상쥬 투아데라각하 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선교 58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정치적인정과 민족적인합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5(2016)년 12월 1일

쿠바인민이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 단장인 최룡해동지 쿠바TV방송과 회견 [쿠바인민 12월 1일 본사특파원들 조선중앙통신] 쿠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 단장으로 쿠바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12월 1일 쿠바TV방송과 회견하였다. 최룡해동지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가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절한 우리 인민은 지금 쿠바인민과 함께 크나큰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서거는 조선을 쿠바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주요 쿠바대사관을 조의방문하시었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예외기간이 선포되고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인민들이 쿠바대사관을 조의방문하시었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예외기간이 선포되고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것은 만리마시대의 중요한 요구

오늘 우리 조국은 세계를 진감시키는 특대사건들과 전화위복의 거적적 승리를 이룩하며 만리마속도로 집종도쳐 나가고있다.

주제조선의 영웅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오늘날의 격동적인 시대에 일군들의 역할을 비상이 높이는데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적적로작 《현시기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는 거대한 리론 실천적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제 90 (2001)년 12월 3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것을 내세우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 주시었다. 새 세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함의적요구를 구현하여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시기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는 거대한 리론 실천적의를 가진다.

《모든 일군들은 실력을 높이는 것이 당과 혁명의 절박한 요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 자신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정면적으로 근기있게 벌여야 합니다.》

지난 기간 우리 최대운성 당위원회에서는 로작에 제시된 사상들을 들어 읽고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하고있으며 진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 우리는 일군들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는것이 만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진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 우리는 일군들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는것이 만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진행하여 왔다.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변신해 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사상이

발동되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부에서도 유를 창조하지만 사상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사상을 놓치면 열려진 문으로도 나갈수 없다. 성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깊이 새겨주시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들어 두고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특대운성부에서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새겨서 하부사업을 시작하고 총화하는것을 생활화하게 하였다. 단련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이 반영을 통해 현실지도사적비를 정중히 모시고 평양해운사업소, 성천김포사업소, 풍화김포사업소에서는 현실지도사적비를 진립하였으며 지난 1년간에 6개 단위들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미립김포사업소가 자체의 힘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소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킬수 있는것은 바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했기때문이다.

현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모든 면에서 무장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비약적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당정책의 전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일군은 아무리 사업에 대한 열정과 투지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해나갈수 없다. 책임일군일수록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당정책을 자기의 체와 살로 만들고 그 관행에서 제일이수가 될수 있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로 보고 영도자의 가르침을 신장하여 책임일군들부터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여야 학습에 1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을 당정책을 써속깊이 포야박한 사상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학습결정을 드세게 일으키고 5대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철립식정치사업

을 병행적으로 벌여왔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진행된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문답식학습과 전우성, 로소성이 강한 방종정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깊이 새겨주시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들어 두고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특대운성부에서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새겨서 하부사업을 시작하고 총화하는것을 생활화하게 하였다. 단련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이 반영을 통해 현실지도사적비를 정중히 모시고 평양해운사업소, 성천김포사업소, 풍화김포사업소에서는 현실지도사적비를 진립하였으며 지난 1년간에 6개 단위들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미립김포사업소가 자체의 힘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소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킬수 있는것은 바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했기때문이다.

현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모든 면에서 무장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비약적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당정책의 전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일군은 아무리 사업에 대한 열정과 투지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해나갈수 없다. 책임일군일수록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당정책을 자기의 체와 살로 만들고 그 관행에서 제일이수가 될수 있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로 보고 영도자의 가르침을 신장하여 책임일군들부터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여야 학습에 1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을 당정책을 써속깊이 포야박한 사상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학습결정을 드세게 일으키고 5대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철립식정치사업

을 병행적으로 벌여왔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진행된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문답식학습과 전우성, 로소성이 강한 방종정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깊이 새겨주시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들어 두고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특대운성부에서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새겨서 하부사업을 시작하고 총화하는것을 생활화하게 하였다. 단련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이 반영을 통해 현실지도사적비를 정중히 모시고 평양해운사업소, 성천김포사업소, 풍화김포사업소에서는 현실지도사적비를 진립하였으며 지난 1년간에 6개 단위들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미립김포사업소가 자체의 힘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소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킬수 있는것은 바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했기때문이다.

현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모든 면에서 무장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비약적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당정책의 전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일군은 아무리 사업에 대한 열정과 투지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해나갈수 없다. 책임일군일수록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당정책을 자기의 체와 살로 만들고 그 관행에서 제일이수가 될수 있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로 보고 영도자의 가르침을 신장하여 책임일군들부터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여야 학습에 1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을 당정책을 써속깊이 포야박한 사상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학습결정을 드세게 일으키고 5대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철립식정치사업

을 병행적으로 벌여왔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진행된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문답식학습과 전우성, 로소성이 강한 방종정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깊이 새겨주시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들어 두고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특대운성부에서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새겨서 하부사업을 시작하고 총화하는것을 생활화하게 하였다. 단련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이 반영을 통해 현실지도사적비를 정중히 모시고 평양해운사업소, 성천김포사업소, 풍화김포사업소에서는 현실지도사적비를 진립하였으며 지난 1년간에 6개 단위들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미립김포사업소가 자체의 힘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소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킬수 있는것은 바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했기때문이다.

현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모든 면에서 무장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비약적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당정책의 전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일군은 아무리 사업에 대한 열정과 투지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해나갈수 없다. 책임일군일수록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당정책을 자기의 체와 살로 만들고 그 관행에서 제일이수가 될수 있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로 보고 영도자의 가르침을 신장하여 책임일군들부터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여야 학습에 1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을 당정책을 써속깊이 포야박한 사상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학습결정을 드세게 일으키고 5대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철립식정치사업

을 병행적으로 벌여왔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진행된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문답식학습과 전우성, 로소성이 강한 방종정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깊이 새겨주시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들어 두고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특대운성부에서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새겨서 하부사업을 시작하고 총화하는것을 생활화하게 하였다. 단련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이 반영을 통해 현실지도사적비를 정중히 모시고 평양해운사업소, 성천김포사업소, 풍화김포사업소에서는 현실지도사적비를 진립하였으며 지난 1년간에 6개 단위들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미립김포사업소가 자체의 힘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소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킬수 있는것은 바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했기때문이다.

현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모든 면에서 무장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비약적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당정책의 전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일군은 아무리 사업에 대한 열정과 투지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해나갈수 없다. 책임일군일수록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당정책을 자기의 체와 살로 만들고 그 관행에서 제일이수가 될수 있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로 보고 영도자의 가르침을 신장하여 책임일군들부터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여야 학습에 1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을 당정책을 써속깊이 포야박한 사상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학습결정을 드세게 일으키고 5대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철립식정치사업

을 병행적으로 벌여왔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진행된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문답식학습과 전우성, 로소성이 강한 방종정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깊이 새겨주시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들어 두고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특대운성부에서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명도명적들을 새겨서 하부사업을 시작하고 총화하는것을 생활화하게 하였다. 단련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이 반영을 통해 현실지도사적비를 정중히 모시고 평양해운사업소, 성천김포사업소, 풍화김포사업소에서는 현실지도사적비를 진립하였으며 지난 1년간에 6개 단위들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미립김포사업소가 자체의 힘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소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킬수 있는것은 바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했기때문이다.

현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모든 면에서 무장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비약적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당정책의 전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일군은 아무리 사업에 대한 열정과 투지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해나갈수 없다. 책임일군일수록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당정책을 자기의 체와 살로 만들고 그 관행에서 제일이수가 될수 있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상문제로 보고 영도자의 가르침을 신장하여 책임일군들부터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여야 학습에 1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을 당정책을 써속깊이 포야박한 사상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학습결정을 드세게 일으키고 5대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철립식정치사업

북변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 (1)

조국의 북변땅에서 전화위복의 거적이 창조되었다. 내제양의 난파도가 모든것을 휩쓸어간 천리해위에서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이 최후까지 견뎠다. 순간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주민들이 불과 2개월만에 상상조차 못했던 멋진 살림집들을 받고 눈물속에, 웃음속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며 꼬박 잠 못 이루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이 안아온 이 력사적인 시련은 천만민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새로운 승리로 고부추동해주고있다. 본사편집국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로소문을 받들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건설에서 60여일간의 철야취재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현지지도방기자들이 촬영한 사진화면들중의 일부를 편제한다.



조선에서 참다운 아동권리, 여성권리의 실현을 보다

올해 초에 나는 《모성의 눈으로 본 조선》이라는 제목의 편집물을 조선법정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였다.

내가 최근년간 조선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감을 적은 이 편집물이 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방영되고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의 소리》에도 실렸는데 그 반응은 참으로 상상밖이었다.

내가 사는 아일랜드에서만이 아니라 유럽과 지어 아시아에서까지 찬사를 보내어왔다. 조선의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는 것, 그를 통하여 조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는 것, 내에 대한 찬사라기보다 그것은 명실공히 진정한 인간애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된다. 《조선의 소리》홈페이지엔 벌써 많은 시청자들이 편집물에 대한 반응을 보내어 왔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편집물을 본 사람들 모두가 다 좋은 소리를 전해준 것은 아니다. 조선에 대하여 비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나를 이단자처럼 보면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하였다.

그 말이 세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나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는다. 편집물에 걸쳐진 희한한 세계를 사신이라고 믿는 것은 조선에 대한 비호가 너무도 부족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극도에 이른 나라라고 무근거한 선전을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끝판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오직 집안만을 담은 나의 편집물을 모독하는 사람들에 나는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에 단 한번이라도 가보았는다고 묻고 싶다.

나는 이 글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참다운 인권이 어디에 있으며 조선에 대한 사랑의 신념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라며 수기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인권을 존한 때 서두에 놓는 것이 아동권리이다.

그것은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정신육체적 특성상 가정과 사회, 국가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도 관련된다. 그 사회의 진보성을 알려면 아이들을 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말일 것이다.

조선이아말로 아이들의 왕국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아동권리가 가장 훌륭하게 실현된 나라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경의로 되고 있는 것은 1959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것들 국제법규범으로 만든 것이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이 국제법규범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아동권리실태를 가늠하는 척도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규범들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1990년에 협약에 서명하고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요구들을 가장 훌륭하게 실현한 조선은 《인권유린국》으로 모독하고 서방은 또 그것을 그대로 외치려고 하니 이아말로 흑역사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주요 조항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놓고 이야기해보자.

국제인권규범들은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나라마다 교육의 년한과 내용 등에서 이월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2억 수천만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무장분쟁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도이쾰란드, 에스파냐와 같은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교육기간은 9-11년이다.

수십년간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제재와 봉쇄 속에 있는 조선이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아무런 간섭도 없이 완전한 무료로 실시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은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여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훌륭한 교육조건에서 마음껏 배우며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 있다.

편집물 《모성의 눈으로 본 조선》에서 보아온 평양학생소년궁전이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비롯한 세계일류급의 교육시설들과 그곳에서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는 조선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장 우월한 아동권리보장제도를 갖춘 조선의 유망한 현실이다.

인제인가 홈페이지에서 조선시대의 서마유

학교를 소개하는 《한 학생을 위한 본교》라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내가 사는 서방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며 조선은 참관하는 기회에 안내원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이 해당국인 조선에는 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동대를 편리하는 사람들과 비롯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도 살고 있는 작은 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섬들에도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깊은 산골이나 외진 섬과 같은 지역의 아동들에 대한 교육조건을 인민정권기관들이 책임지고 원만히 보장하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 명기되어 있다고 하였다.

물론 섬에 있는 1-2명의 아이들을 위해 따로 학교를 내오지 않고 그들을 붙여 있는 학교에 기속시키며 교육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섬에 학교를 내오고 표현을 과장한 것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생활할 아동의 권리까지 고려한 참으로 훌륭한 교육제도로서 이러한 교육제도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학생이 학교와 선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선생이 학생을 찾아가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나는 본적도 없던 나라는 적도 없다. 섬에 가서 세상에 없는 특권을 행사하는 주인공을 꼭 만나보았는지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후날 나는 조선소년단원들의 행사에 참석하는 김정은원수께서 소년단체 대표를 만나주시는 역사적인 회담속에서 그 학생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 자그마한 동생의 어린이가 나라의 평도자를 만나보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현실을 보며 조선의 훌륭한 아동권리보장제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는 어린이의 생명권과 발전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로서 아동권리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보호제도에서도 조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이다. 조선의 의료보건제도에서 세계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우선 어린이건강보호에 대한 법적요구의 실현을 담보하는 무상치료제이다.

돈이 없으면 살수 없는 서방세계에서 돈 때문에 잠시 하나를 잃은 나머지인 조선은 항상하면서 의료시설들을 통하여 돈이 많은 시간을 들이었고 조선에서 실시하는 전담적무상치료제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방문의 나날 나는 평양선원과 유류 아동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시설들을 돌아다녔는데 어느곳이든 아이들과 어울리는 훌륭한 심비와 환경, 의료봉사가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있었다.

발전된 일부 서방나라들에서도 의료보험에 든 대상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무료로 의료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의 무상치료제는 그와는 달리 의료봉사의 대상과 봉사내용의 범위에서 제한이 없으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전담적무상치료제에 관한 것이다. 다시말하여 조선에서는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진찰비와 심검비, 약값, 입원치료비는 물론 요양비와 요양소 오가는 경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등 모든 형태의 의료비용이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으며 이 혜택을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고있다.

만일 내 딸도 조선에서 나사자랐다면 비명에 생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존재해가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4살때 폐자가 되고 20살도 못 넘어서 생을 마친 딸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어찌는 것만 같다.

조선의 어린이건강보호제도에서 또 한 가지 특색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전을 일컫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정신육체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과 보전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정책화하고 실현한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다.

내가 처음으로 이에 대하여 느꼈다는 평양의 유류아동병원을 참관할 때였다.

의료시설이 현대적이고 의료봉사의 질이 높은것은 감동적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이곳이 병원인것은 학교이고 집처럼 되고 있는 사실은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병원에는 고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입원해있는 기간 학교수업이 이뤄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수업이 주조되었다. 또한 실내와 야외에 놀이장들이 있어 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만사적으로 긴장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이곳을 병원이 아니라 자기 집처럼 여기고있었다. 이것이 조선에서 어린이교육과 보전을 결합시킨 첫번째 방식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방나라들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병원은 본 적이 없다.

조선에서 어린이교육과 보전을 결합한 두번째 방식은 어린이교육 및 교육기관들에 의료서비스를 갖추어놓은 것이다. 조선의 모든 약사와 유치원, 학교들은 물론이고 과외교양시설들은 의료인원들이 전속되어있고 국가로부터 의료기구와 약품을 공급되고있다. 어린이들에게 뜻밖의 일로 의료상방조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체계인 것이다.

2014년에 나는 두 아들과 함께 송도원 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아영생활을 하였는데 그곳 진료소에서는 모든 아영생활의 전

장상대를 매일 매 순간 관찰하면서 의료상방조가 필요할 때에는 제때에 대응하곤 하였다. 우리 아이들도 진료소의 신세를 특별하게 졌다.

조선의 이처럼 훌륭한 교육제도와 보건제도는 모든 어린이들이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할수 있는 토양으로 되고있다.

어린이인원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는 돌발사범이 없는 아동의 양육문제에 대하여 더 언급하려고 한다.

사실 그 어느 나라에 가보아도 동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다름없이나 지각전습들을 집으로 삼고있는 아이들이 쉽게 눈에 뜨인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길거리에서 통냥을 하거나 로숙하는 아이들이 찾아볼수 없다.

지나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서방과는 너무도 판이한 권리의 풍경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던 안내자는 다음날 일출을 번거롭게 지방의 어느 한 옥아원, 애육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그 옥아원, 애육원이 얼마나 멋있고 거기에서 원아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는지에 대하여 한두마디 말로는 도저히 그대도 그려낼 수가 없다. 부모없는 아이들같이 않게 구경살려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 친부모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돌보는 교양원들의 성실한 태도, 현대적인 교육시설들...

날알어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현실을 놓고 즉시 선전용으로 시범적으로 꾸민 옥아원, 애육원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는데 인치 그 속단을 부밍하지 않았으면 안되었다. 《어느곳에서든 제일 좋은 집에 가보면 그곳은 틀림없이 옥아원, 애육원이다.》라고 옥아원 원장이 설명해주었기때문이였다.

실지로 현대적이든 공간같은 옥아원, 애육원이 지방의 그 어느곳이나 다 있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으로 되고있는 교아원 부모없는 아이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보며 누구나 찬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이처럼 훌륭한 아동권리보장제도를 가지고있는 조선은 놓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총회 제 71차회의 3위원회에서 그 무슨 《북인권진척의 언조》라는 것을 강압 채택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 결의안의 작성자들이 참으로 가슴속이 짝이 없다.

조선에서 참지도는 눈물 맺고 지켜보며 연구하는 데조진전문가들이있지만 그들은 김정은원수께서 새해 첫날에 옥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을 찾아서 모든 보물을 들었듯이 원아들이 그이를 《어버지》라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또 세상에 볼수 없는 희한한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아영소, 아동병원들이 아동병원을 비롯하여 조선의 어린이들이 말안하는 모든 선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발가와 평도로 마련되었다는 것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과같은 것이 못된다. 오직 그들에게 구되는 것에는 세상에 조선을 모독하는 나라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무시되는 나라로 인식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들이다. 조선의 고립외교정책을 국적으로 정한 미국의 위정자들의 구미에 맞는 불사를 꾸미는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염기때문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계에서의 어쩔수 없는 생존방식이라 하였지만 그대도 인간의 초보적인 광성이 있다면 빛은 또한 하고 집은 것은 집이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깨우칠수 없다. 미국과 서방이 권모술수로 일시적인 눈속임은 할수 있어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선진적인 아동권리보장제도를 세워놓은 자기의 수백만 아들만큼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뜻한 품에 안아 훌륭히 키워주는 조선의 참모습은 영원히 가려울수 없다.

2

한 서방인은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 있다면 조선의 어린이로 태어나고싶다고 했다. 그 어떤 부모도 가시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나시 때에한다면 조선 너정도로 태어나고싶기때문이다. 조선이아말로 너정의 권리가 왕왕대 보장되고 너정의 존엄이 가장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너정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리상국이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역사법전에서 노는 너정육육의 역할을 대한 평가라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정들은 수수천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겼던 현대와 현실에서 시달려왔다. 오죽하면 유럽의 한 철학자가 《남자로 태어날수 있게 해준대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겠는가.

비로소 너정권리문제가 중요한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는 근대에 들어서서부터였다.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너정들의 투쟁속에 3, 8일이 생겨났고 세계인권선언에 너정평등을 위한 분구가 세겨지게 되었으며 너정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법규범들이 채택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의 절대수 너정들은 너정권리문제로 투쟁의 길에 여전히 《인형의 집》의 노라나 《노르드담타사》의 에스메랄다, 《동백꽃아가씨》의 마르그리트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못하고있다. 《문명》과 《발전》을 떠돌고있는 서방나라들에서도 실지 너정평등을 위한 너정들의 권리보장은 필진주의 법으로만 남아있다.

하지만 서방세계가 온갖 기만선전을 다

해가 《인권유린국》, 《인권분모지》 감루를 띄우지 못해 인안이 나하는 조선에서는 너정평등이 완전히 실현되고있다.

나는 조선방문과정에서 조선이아말로 너정평등을 위한 국제법규범이 현실화되나, 너정들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나라라는 것을 절감하였다.

인권헌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일할 권리를 놓고보자.

1979년에 채택된 《너정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협약》에 의해서 너정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적절한 노력을 취하며 결혼과 모성이라는 것을 자유로 너정들을 차별하는 것을 없애고 모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대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아일랜드에서는 의연 모성에 대한 권리에 있어 너정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있다. 나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두번째 아이를 낳고는 대학졸업 후 두어 달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대학을 겨우 졸업한 학력을 가지고서도 실업자처럼 불어지게 된 것이다. 세번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직업을 얻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이나 힘든 일로 되었다.

이것은 나에게만 한한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너정들은 취업에서는 마지못해선 안면이 해고에서는 첫 대상으로 되고있다. 남성보다 능력과 경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사정은 말라지지 않는다. 황소가 바늘구멍을 통과하지만공이나 힘든 것이 바로 자본주의세계에서 너정들의 취업이다.

생존권보장에서 기본인 취업에서의 이러한 차별로 하여 너정들은 나만이 빈곤층이 되고있으며 발전권에 대하여서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너정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모성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발전권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조선에 대한 첫 방문시 나는 지방도시의 한 피복공장을 참관하게 되었다.

너정들이 모성은 공장을 보고있다는 나의 요청이 수락된 것이다.

공장에 도착하니 나이 지긋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친숙한 너성이 나를 반기기 시작했다. 그 너성은 공장의 지배인이었다.

어떻게 되어 너성이 큰 공장의 지배인으로서 되었을가 하는 호기심이 나를 부쩍 끌어당겼다.

공장은 그 너성에 대한 취재와도 같은 것이었다. 공장의 가는 곳마다에서 그 너성이 걸은 자취자취를 느낄수 있었다.

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나시에서는 일할 나이가 된 너정들이 희망에 따라 로동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 권리가 무조건으로 주어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여 평범한 로동자의 딸인 그 너정도 공장을 졸업하고 소양대로 이 공장에 취직하여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뒀고 입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에 망라되어 기능공양성과정과 대학과정을 마쳤으며 적당관장, 직장장을 거쳐 공장의 지배인으로까지 되었다는 것이었다. 공장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부나 그 너정의 얼굴에 한껏 비쳐있었다.

국가가 마련해준 직업을 가지고 거의 한생을 일해오면서 한가 공장을 책임진 일꾼으로 성장한 이 너성은 사실 공장의 이 야기처럼 들려왔다. 언젠갈 일자리를 가지려는 소박한 소원마저도 50개를 마바는 오늘날까지 마지못 못하고있는 너성은 생각지도 바라지도 못한 인생경이기에 붙어있다.

너정노동자들이 깨닫고 아늑하게 꾸며진 생산현장에서 현대적인 심비들을 다루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며 과학기술보급실에 있어 완전대학교까지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조선이 훌륭히 키워준 너정 문화수업시설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배인의 이야기가 꾸밈없는 진실임을 알수 있었다.

그날 나는 공장의 약아소와 유치원도 돌아보았다. 너정노동자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적이며 육체와 교육양양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약아소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뛰놀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새 자식을 낳아 키울 어머니인 지배인이 어떻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나올수 있었고 지배인도 될수 있었는지 리해가 되었다.

유치원 생활의 설명을 듣고 난 일이지만 조선에는 너정들의 사회적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나라의 뜻에 약아소, 유치원이 세워졌으며 특히 너정종업원이 많은 공장, 기업소에는 권속약아소와 유치원을 꾸려 로서의 권리를 빼앗겼던 현대와 현실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약아소, 유치원 아이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교육양양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뿐 아니라 아이들의 재능의 좌를 찾아 꽃피우려는 것도 의무화되어있다.

나는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아일랜드에도 약아소나 유치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도 적어 아이를 약아소와 유치원에 맡기려면 먼저 선생을 채용하고 승인이 될 때까지 몇달이고 기다려야 하며 일단 들어가서는 첫걸음부터 막대한 돈을 내야 한다. 그것은 가정용 돌보아야 하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자기의 발전권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실지로 나는 세 자식을 낳은 뒤에 하하오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던 애초의 꿈을 버려야 했고 자식들을 먹여살리는데만 급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도 나는 두

자식을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하고있지만 걱정거리기는 덜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러워지고있다.

비다들의 전맛은 한모금이면 알수 있다. 나는 피복공장 너정지배인의 보람찬 삶에서 조선에서 너정들의 취업권과 발전권을 위해 둘러지는 법적, 제도적해택이 얼마나 훌륭했건가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

너정들이 아무런 관심적정없이 남자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되고 너정들의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주는 조선의 너정권리보장제도는 서방의 너정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너정의 신성한 권리인 출산의 자유를 대하는 두 제도의 힘장도 완전히 상반된다. 아일랜드에서 내가 세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 의사들은 애지우기수술을 할것을 나에게 권고하고있었다. 그것은 나의 건강이나 아이키우는 부담을 우려해서가 아니었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자식이 셋이상인 너정들이 사회적인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어느 기업주도 아이가 많은 너정을 고용하려 하지 않으며 세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만 알아도 해고시키고한다. 사회의 《고명》과 《인로한 부양자》들이 많이 생겨나 문제거리로 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많이 낳는 것이 수치의르로 일로 되고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며 출산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기만적인 너정권리보장제도의 실상이다.

누군가는 모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중의 하나가 새 생명의 고고성을 들는 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 너정들은 자식의 고고성을 들으며 기쁨에 잠길 준비마저도 짓밟히고있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너정들의 출산의 자유가 신성시되고있다.

세계일류급의 평양선원과 같은 병원들이 각 지방에도 건설되어 너정들에 대한 최상대의 의료상방조로 가장 안전한 태산을 담보하고있다.

인류사를 이어가야 할 소중한 의무를 지닌 너정들을 위해 산현의 훈비타에 수심의 보석으로 꽃잔을 베푼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처음 평양선원에서 새생들이, 내생들이와 그 어머니들에게 둘러지는 해택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감동은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특별한 배려일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것은 너무도 짧은 생각이었다.

나를 안내한 평양선원의 일꾼은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된다는 데에 의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조선의 너정권리보장법은 너성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구를 제공하여 너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임신기너성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줄에 대한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매사, 대대자를 낳아 키우는 너성에게는 담당의사들 두명 훌륭한 산림법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들린다고 되어있다.

조선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은 너정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준뿐 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양》정로까지 인정해주었다. 해산비, 입원비를 따져가며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를 돈으로 계산해야 하고 쌍둥이 내 낳아도 시외로 환승을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너정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이렇듯 훌륭한 너정권리보장제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평범한 너정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법정위원의 대의원으로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끊어지고있다.

두번째 7월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의 소리》에서 조선에서의 너정권리보장제도에 68쪽을 제기로 실린 《너정노동자의 권리》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의 주인공은 조선에서 존중받는 김정숙평양직공장의 평범한 직로봉 분강순이었다.

기사에 의하면 유복녀로 태어난 그 학업을 졸업하고 직로봉이 되었는데 그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떼기 바쁘게 흠이어나버지 제 일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인 사회의 밑바닥에서 복습중자 연명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실용을 모르고 사회와 집단의 따뜻한 관심속에 현실적으로, 로력영웅으로 성장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내내 남미다 북이 차였다. 수도 중심지의 남정끼리 새 집을 받아안고나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원수를 자기 집에 모시었다.

김정은원수께서 부모들보다 먼저 부인과 함께 평양을 이 로동자부부의 집을 찾으며 새 집들을 축하해주고 한식출제할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신 이야기와 함께 인터넷로 널리 소개되었다. 그후 나라와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굳은 불강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임명되었다.

중요한것은 그것이 분강순에게만 차제된 북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그가 일하는 공장의 언현사대원도 17명의 너정영웅들과 4명의 너정사대원이 기록되어있는데 그들모두가 다 평범한 로동자들이었다.

그녀 로동자, 농민이든, 지식인이든 거름없이 너정들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 분강순과 같이 행복한 인생을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온갖 조건을 가장 최상의 높이에서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조선의 너정권리보장제도이다.

서방나라들에서는 너정대통령이 나오고 너정상이 나오는 것을 두고 마지못 너정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너정평등이 실현되어가고있는 것이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특정한 너정들이 국가의 수뇌직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너정평등, 너정권리 실현의 상징으로 볼수 있었는가, 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복지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대다수 근로너정들에게 있어서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서방세계가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너정권리보장제도란 특정한 계층의 너정들과 권리의 위법함을 받는 너정들만을 위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정명 조선은 너정중심, 너정존중의 화원이며 너정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너정권리보장제도의 본보기이다.

조선에는 《너성은 꽃이아니》라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피어날때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정과 열을 다 바쳐가는 조선너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찬탄인 동시에 너정중심, 너정존중의 화원을 펼쳐는 조국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비록조국단의 큰 케논이 지은 노래 《너성은 옥인이다》의 구슬은 구슬들을 생각하곤 한다.

노래에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가혹한 인종차별과 멸시, 편애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흑인과 다름없으며 너정들을 울리는 너정들의 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나온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이 노래는 아직도 자본주의세계에서 너정들의 비기로 울리고있다.

언제면 자본주의세계의 너정들이 자기 본연의 아름다움과 고상한 사랑을 알고 있는 것, 피어나 꽃으로 피어날때를 날이 오겠는가.

현실이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에 너정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인권분모지》로 몰아가기 위해 말악하고있다.

그들이 꾸미려는 조선에서의 모든 《인권유린》행위를 논리적으로, 리성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은 서방세계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정중심, 너정중심의 인권법칙행복물이다.

너정권리보장과 관련한 법규범들에서 규탄대적당하고있는 너성의 인신매매와 너정폭력은 근절되지 않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까지 매춘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승인을 받아들이고있으며 성인연애 나온 돈을 국민소득액에 포함시키고있다. 《유럽의 경제기적》으로 불려왔고있는 어느 나라에서든 적정인 해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구를 제공하여 너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임신기너성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줄에 대한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매사, 대대자를 낳아 키우는 너성에게는 담당의사들 두명 훌륭한 산림법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들린다고 되어있다.

조선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은 너정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준뿐 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양》정로까지 인정해주었다. 해산비, 입원비를 따져가며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를 돈으로 계산해야 하고 쌍둥이 내 낳아도 시외로 환승을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너정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이렇듯 훌륭한 너정권리보장제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평범한 너정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법정위원의 대의원으로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끊어지고있다.

두번째 7월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의 소리》에서 조선에서의 너정권리보장제도에 68쪽을 제기로 실린 《너정노동자의 권리》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의 주인공은 조선에서 존중받는 김정숙평양직공장의 평범한 직로봉 분강순이었다.

기사에 의하면 유복녀로 태어난 그 학업을 졸업하고 직로봉이 되었는데 그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떼기 바쁘게 흠이어나버지 제 일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인 사회의 밑바닥에서 복습중자 연명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실용을 모르고 사회와 집단의 따뜻한 관심속에 현실적으로, 로력영웅으로 성장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내내 남미다 북이 차였다. 수도 중심지의 남정끼리 새 집을 받아안고나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원수를 자기 집에 모시었다.

김정은원수께서 부모들보다 먼저 부인과 함께 평양을 이 로동자부부의 집을 찾으며 새 집들을 축하해주고 한식출제할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신 이야기와 함께 인터넷로 널리 소개되었다. 그후 나라와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굳은 불강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임명되었다.

중요한것은 그것이 분강순에게만 차제된 북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그가 일하는 공장의 언현사대원도 17명의 너정영웅들과 4명의 너정사대원이 기록되어있는데 그들모두가 다 평범한 로동자들이었다.

그녀 로동자, 농민이든, 지식인이든 거름없이 너정들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 분강순과 같이 행복한 인생을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온갖 조건을 가장 최상의 높이에서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조선의 너정권리보장제도이다.

서방나라들에서는 너정대통령이 나오고 너정상이 나오는 것을 두고 마지못 너정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너정평등이 실현되어가고있는 것이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특정한 너정들이 국가의 수뇌직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너정평등, 너정권리 실현의 상징으로 볼수 있었는가, 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복지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대다수 근로너정들에게 있어서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서방세계가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너정권리보장제도란 특정한 계층의 너정들과 권리의 위법함을 받는 너정들만을 위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정명 조선은 너정중심, 너정존중의 화원이며 너정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너정권리보장제도의 본보기이다.

조선에는 《너성은 꽃이아니》라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피어날때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정과 열을 다 바쳐가는 조선너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찬탄인 동시에 너정중심, 너정존중의 화원을 펼쳐는 조국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비록조국단의 큰 케논이 지은 노래 《너성은 옥인이다》의 구슬은 구슬들을 생각하곤 한다.

노래에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가혹한 인종차별과 멸시, 편애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흑인과 다름없으며 너정들을 울리는 너정들의 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나온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이 노래는 아직도 자본주의세계에서 너정들의 비기로 울리고있다.

언제면 자본주의세계의 너정들이 자기 본연의 아름다움과 고상한 사랑을 알고 있는 것, 피어나 꽃으로 피어날때를 날이 오겠는가.

현실이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에 너정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인권분모지》로 몰아가기 위해 말악하고있다.

그들이 꾸미려는 조선에서의 모든 《인권유린》행위를 논리적으로, 리성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은 서방세계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정중심, 너정중심의 인권법칙행복물이다.

너정권리보장과 관련한 법규범들에서 규탄대적당하고있는 너성의 인신매매와 너정폭력은 근절되지 않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까지 매춘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승인을 받아들이고있으며 성인연애 나온 돈을 국민소득액에 포함시키고있다. 《유럽의 경제기적》으로 불려왔고있는 어느 나라에서든 적정인 해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구를 제공하여 너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임신기너성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줄에 대한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매사, 대대자를 낳아 키우는 너성에게는 담당의사들 두명 훌륭한 산림법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들린다고 되어있다.

조선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은 너정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준뿐 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양》정로까지 인정해주었다. 해산비, 입원비를 따져가며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를 돈으로 계산해야 하고 쌍둥이 내 낳아도 시외로 환승을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너정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이렇듯 훌륭한 너정권리보장제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평범한 너정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법정위원의 대의원으로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끊어지고있다.

두번째 7월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의 소리》에서 조선에서의 너정권리보장제도에 68쪽을 제기로 실린 《너정노동자의 권리》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의 주인공은 조선에서 존중받는 김정숙평양직공장의 평범한 직로봉 분강순이었다.

기사에 의하면 유복녀로 태어난 그 학업을 졸업하고 직로봉이 되었는데 그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떼기 바쁘게 흠이어나버지 제 일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인 사회의 밑바닥에서 복습중자 연명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실용을 모르고 사회와 집단의 따뜻한 관심속에 현실적으로, 로력영웅으로 성장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내내 남미다 북이 차였다. 수도 중심지의 남정끼리 새 집을 받아안고나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원수를 자기 집에 모시었다.

김정은원수께서 부모들보다 먼저 부인과 함께 평양을 이 로동자부부의 집을 찾으며 새 집들을 축하해주고 한식출제할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신 이야기와 함께 인터넷로 널리 소개되었다. 그후 나라와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굳은 불강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임명되었다.

중요한것은 그것이 분강순에게만 차제된 북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그가 일하는 공장의 언현사대원도 17명의 너정영웅들과 4명의 너정사대원이 기록되어있는데 그들모두가 다 평범한 로동자들이었다.

그녀 로동자, 농민이든, 지식인이든 거름없이 너정들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 분강순과 같이 행복한 인생을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온갖 조건을 가장 최상의 높이에서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조선의 너정권리보장제도이다.

서방나라들에서는 너정대통령이 나오고 너정상이 나오는 것을 두고 마지못 너정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너정평등이 실현되어가고있는 것이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특정한 너정들이 국가의 수뇌직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너정평등, 너정권리 실현의 상징으로 볼수 있었는가, 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복지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대다수 근로너정들에게 있어서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서방세계가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너정권리보장제도란 특정한 계층의 너정들과 권리의 위법함을 받는 너정들만을 위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정명 조선은 너정중심, 너정존중의 화원이며 너정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너정권리보장제도의 본보기이다.

조선에는 《너성은 꽃이아니》라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피어날때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정과 열을 다 바쳐가는 조선너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찬탄인 동시에 너정중심, 너정존중의 화원을 펼쳐는 조국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비록조국단의 큰 케논이 지은 노래 《너성은 옥인이다》의 구슬은 구슬들을 생각하곤 한다.

노래에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가혹한 인종차별과 멸시, 편애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흑인과 다름없으며 너정들을 울리는 너정들의 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나온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이 노래는 아직도 자본주의세계에서 너정들의 비기로 울리고있다.

언제면 자본주의세계의 너정들이 자기 본연의 아름다움과 고상한 사랑을 알고 있는 것, 피어나 꽃으로 피어날때를 날이 오겠는가.

현실이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에 너정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인권분모지》로 몰아가기 위해 말악하고있다.

그들이 꾸미려는 조선에서의 모든 《인권유린》행위를 논리적으로, 리성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은 서방세계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정중심, 너정중심의 인권법칙행복물이다.

너정권리보장과 관련한 법규범들에서 규탄대적당하고있는 너성의 인신매매와 너정폭력은 근절되지 않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까지 매춘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승인을 받아들이고있으며 성인연애 나온 돈을 국민소득액에 포함시키고있다. 《유럽의 경제기적》으로 불려왔고있는 어느 나라에서든 적정인 해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구를 제공하여 너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임신기너성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줄에 대한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매사, 대대자를 낳아 키우는 너성에게는 담당의사들 두명 훌륭한 산림법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들린다고 되어있다.

조선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은 너정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준뿐 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양》정로까지 인정해주었다. 해산비, 입원비를 따져가며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를 돈으로 계산해야 하고 쌍둥이 내 낳아도 시외로 환승을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너정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이렇듯 훌륭한 너정권리보장제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평범한 너정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법정위원의 대의원으로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끊어지고있다.

두번째 7월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의 소리》에서 조선에서의 너정권리보장제도에 68쪽을 제기로 실린 《너정노동자의 권리》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의 주인공은 조선에서 존중받는 김정숙평양직공장의 평범한 직로봉 분강순이었다.

기사에 의하면 유복녀로 태어난 그 학업을 졸업하고 직로봉이 되었는데 그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떼기 바쁘게 흠이어나버지 제 일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인 사회의 밑바닥에서 복습중자 연명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실용을 모르고 사회와 집단의 따뜻한 관심속에 현실적으로, 로력영웅으로 성장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내내 남미다 북이 차였다. 수도 중심지의 남정끼리 새 집을 받아안고나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원수를 자기 집에 모시었다.

김정은원수께서 부모들보다 먼저 부인과 함께 평양을 이 로동자부부의 집을 찾으며 새 집들을 축하해주고 한식출제할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신 이야기와 함께 인터넷로 널리 소개되었다. 그후 나라와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굳은 불강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임명되었다.

중요한것은 그것이 분강순에게만 차제된 북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그가 일하는 공장의 언현사대원도 17명의 너정영웅들과 4명의 너정사대원이 기록되어있는데 그들모두가 다 평범한 로동자들이었다.

그녀 로동자, 농민이든, 지식인이든 거름없이 너정들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 분강순과 같이 행복한 인생을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온갖 조건을 가장 최상의 높이에서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조선의 너정권리보장제도이다.

서방나라들에서는 너정대통령이 나오고 너정상이 나오는 것을 두고 마지못 너정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너정평등이 실현되어가고있는 것이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특정한 너정들이 국가의 수뇌직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너정평등, 너정권리 실현의 상징으로 볼수 있었는가, 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복지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대다수 근로너정들에게 있어서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서방세계가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너정권리보장제도란 특정한 계층의 너정들과 권리의 위법함을 받는 너정들만을 위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정명 조선은 너정중심, 너정존중의 화원이며 너정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너정권리보장제도의 본보기이다.

조선에는 《너성은 꽃이아니》라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피어날때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정과 열을 다 바쳐가는 조선너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찬탄인 동시에 너정중심, 너정존중의 화원을 펼쳐는 조국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비록조국단의 큰 케논이 지은 노래 《너성은 옥인이다》의 구슬은 구슬들을 생각하곤 한다.

노래에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가혹한 인종차별과 멸시, 편애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흑인과 다름없으며 너정들을 울리는 너정들의 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나온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이 노래는 아직도 자본주의세계에서 너정들의 비기로 울리고있다.

언제면 자본주의세계의 너정들이 자기 본연의 아름다움과 고상한 사랑을 알고 있는 것, 피어나 꽃으로 피어날때를 날이 오겠는가.

현실이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에 너정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인권분모지》로 몰아가기 위해 말악하고있다.

그들이 꾸미려는 조선에서의 모든 《인권유린》행위를 논리적으로, 리성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은 서방세계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정중심, 너정중심의 인권법칙행복물이다.

너정권리보장과 관련한 법규범들에서 규탄대적당하고있는 너성의 인신매매와 너정폭력은 근절되지 않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까지 매춘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승인을 받아들이고있으며 성인연애 나온 돈을 국민소득액에 포함시키고있다. 《유럽의 경제기적》으로 불려왔고있는 어느 나라에서든 적정인 해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구를 제공하여 너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임신기너성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줄에 대한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매사, 대대자를 낳아 키우는 너성에게는 담당의사들 두명 훌륭한 산림법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들린다고 되어있다.

조선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은 너정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준뿐 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양》정로까지 인정해주었다. 해산비, 입원비를 따져가며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를 돈으로 계산해야 하고 쌍둥이 내 낳아

